통권 141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7.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원회에서는 이석기님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매일같이 연세대-청와대-북악산 팔각정-청와대-연세대까지 25㎞를 도보순례하고 있다.
사진/도보순례단 제공

◀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상노숙감옥시위를 하고 있는 유영업 5기 한총련 의장권한대행과 이산라 단국대 2001년 총학생회장. 사진/통일뉴스 제공

• 목 • 차 •

우리의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 시 김은경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 5 / 출소장기수 김원철 선생님을 만나뵙고 곽은경 대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 6 / 예비양심수를 찾아서 박정미 前 유뉴스 기자 • 8 / 회원 생각 유영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전교조 교사 • 9 / 양심수 이석기님께서 보내온 편지 • 10 / 양심수들에게 보내는 편지 유병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 12 / 회원교육강좌 보고 이일규 회원 • 14 / 산행기 김재선 회원 • 15 / 청와대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김민정 회원 • 17 / 특집 '노무현 정부 출범 120일 평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 19 / 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언 이기욱 양심수후원회부회장, 민변 변호사 • 22 / 나의 삶 나의 일터 이진 회원 • 24 / 시사만화 • 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양심수에게 자유를! 정치수배자들에게 해방을!

8 · 15 광복절 양심수 사면을 다시 촉구 한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은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공동의 목표였다. 그래서 양심수의 뜻을 지지하고 성원하며 석방과 후원을 해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은 돌아오는 광복절에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고자 오늘 한자리에 함께 하였다.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사람은 분명히 양심수이고 양심수를 구속 탄압하는 행위는 반인권 반문명 행위이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이루어낸 우리민족 최대의 경축일이다. 주권을 잃고 억압과 착취의 고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자유와 해방의 영광스러운 날 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복절이기에 역대정권들은 심지어 포악한 군부독재 시대에도 광복절 양심수사면을 해오고 있었다. 이제 다시 민족해방절 58돌을 맞아 지난 4.30 양심수사면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이석기씨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등 모든 수배자들의 조건 없는 수배해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갖고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잘못된 노동 관련법 등으로 통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다 구속된 이 땅의 양심들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안당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이러한 기본권 일부를 제한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양심수가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양심수는 파렴치범이 아니고 권력형 부정비리의 범죄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정당했고 법정에서도 의연하였다. 양심수 이석기 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이 청와대 앞 도보순례 등 2000km를 넘게 석방촉구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4.30 양심수 사면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이석기씨를 비롯하여 김형주 10기 한총련 의장 등 기결양심수는 물론 원양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들과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구속되는 등 8월 4일 현재 구속된 102명 양심수 모두를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말하면서 양심수를 가둬두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성한 자주적, 학생 대중조직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것 또한 반민주, 반인권 폭거이다. 애국청년학생들을 칭찬은 못할망정 터무니없게 이적단체로 규정 학생회 간부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거나 길게는 7년이 넘게 정치수배로 쫓고 있는 현실 또한 반문명적 야만 행위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6.15 남북공동선언시대 더 이상 존립명분이 없어 졌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에서 실형률은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한총련 대의원들은 거의 100%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더 이상 한총련 관련 청치수배자를 검거,

압박 하는 행위가 부당함을 말해 주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와 11기 한총련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총련 대의원 등으로 수배 내사 중인 152명 가운데 79명만을 불구속 수사를 통해 수배해제를 하겠다는 선별해제 의지를 밝혔고, 11기 한총련도 여전히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총련에 대한 시각은 일부 전향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냉전시각의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통일 반인권 행위로써 한총련에 대한 시대 역행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복절 양심수 사면과 함께 한총련 정치수배자 152명을 전원 수배해제 해야 한다. 또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홍순석 한청 부회장 여중생 범대위 집행부간부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영장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위해 경제인으로 오랫동안 헌신해오던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에 충격을 받고 있다. 민족통일을 향한 노력을 냉전의 올가미에 씌워 죽인 '분단타살' 이란 평이 있듯이 정회장의 죽음은 미국에서 정보제공을 했고, 수구냉전세력이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대북송금특검법 진행과 무관치 않다. 이제라도 특검법에 따른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사법 재단을 중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구속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아오면서 반전평화운동이 그 어떠한 인권 운동에 뒤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늘 조국 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위협이 가중되고있는 조건에서 반전평화 운동은 더욱 절실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최준호씨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들도 광복절 사면에서 반드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8월 6일

전국 양심수후원회 모임
광주 전남 양심수후원회
대구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대전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아름다운 진화

김은경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꽃속으로는 고운 사람의 발길만 오가는 게 아니어서
꽃속으로는 꽃소식만 오가는 게 아니어서
때론 꽃이 화염처럼 터지기도 하고
황하를 건넌 모래바람에 짓눌려
꽃씨들은 미처 부화하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신이 우리에게 부친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햇살은 시들고
물새들이 깊은 강을 채 건너오기도 전에
강물은 바짝 말라버릴지도 모르지요
그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도 전에
내 기다림은 지루함과 고독으로
병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은경 님은 2000년 실천문학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이자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이며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빛나는 봄날이면
나는 한 포기의 꽃나무를 심고
바람에 부스스 잠이 깬 열매들을 거두어
술을 담글 겁니다
항아리는 옹기쟁이의 체온으로 아직 따뜻하고
신의 입김으로 인해 우물물은 아직 썩지 않았습니다
사과 속엔 벌레가 지나간 무수한 길들이 있고
단내 나는 그 길 속에는
발효의 시간을 기다리는 당신과 내가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빚어내는 풍화의 쓴맛을 우리도 곧 보게 되겠지요
별빛 쏟아지는 취향의 그 길 속에
언젠가 우리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
일몰이 오기 전에 내 손을 잡아 주세요
우리 피와 살을 한데 섞어
사과향 짙어가는 그곳으로 함께 가요
퍼붓는 총알을 멈추고
겨자씨만한 생명이라도 온몸으로 품어낼 사람
아주 먼 사막이라도
온밤을 걸어서 나와 함께 갈 사람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발효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향기는 아무도 모르게 익어가고 있어요
나는 당신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
어둠이 뿌린 빛살의 계단을 밟고
오세요
내 기꺼이 손을 잡아 드릴테니
당신 뼛속에 내 입김을 불어넣어 드릴 테니.

‘면회소 설치라도 된다면…’

곽은경 대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1961년 1월.

함께 내려온 분 중 한 분이 딸 결혼식에 참석한 까닭에 식에 참석한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신부의 아버지를 이상히 여겨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일행 4명은 모두가 구속되게 된다. 2명은 1심에서 사형, 2명은 무기징역.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한 사람이 바로 출소 장기수 김원철 선생님이다.

27년 옥고를 치르고 출소 후 사법 보호소에서 줄곧 살아가고 계시는 김원철 선생님을 찾아뵙는 그 날은 가을날처럼 궂은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사법보호시설임을 전혀 알 수 없는 한 빌딩 입구에서 눈에 익은 분위기의 한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다. 운동복 잠바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신 채.

첫눈에 김원철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1918년 10월 29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하셨다.

청년 시절부터 선박관리, 사무 근무,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바다꾼’으로 살아오셨던 선생님은 언제나 배를 타고 싶어 53년 휴전 후 전쟁으로 어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철산수산사업소로 가서서 배도 만들고 교육도 하실 만큼 타고난 바다사나이었다. 1942년 결혼하여 생활하시다 홀어머니와 아내, 아들을 두고 남녘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다. 1961년 남녘에 내려와 곧바로 구속된 선생님은 그 후로 27년이라는 강산이 몇 번 변하는 시간을 교도소를 옮겨 다니며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러던 78년 가을 어느 날, 전주교도소에서 말로만 듣던 사상전향 공작이 진행된다.

사상전향 전담반은 오랜 감옥 생활로 사회의 물정을 모르던 김원철 선생님을 사회견학을 시켜주면서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며 온화(?)한 사상전향 공작을 펴다 그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자 폭력적 공작으로 전환한다. 매일 아침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들려오던 그때.

사상전향 전담반은 소위 ‘통닭구이’(손과 발을 봉을 가운데 두고 묶어서 거꾸로 공중에 매다는 것)를 시켜 부딪히는 곳 어디라도 몽둥이 찜질을 해댔고 코에는 고춧가루 물을 부어대는 등 철저히 동물적 행태를 해대었다. 수갑을 채운 채 의자에 온몸을 고정시켜 놓고 야구방망이로 쳐대던 전향전담반의 살인적인 만행은 밤에도 자살하지 못하게 철저한 감시를 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문을 해댔던 것이다.

어느 날.

고문에 이기지 못해 기절하였던 선생님은 정신이 들고 난 뒤 백지에 찍힌 지문을 확인하게 된다. 그 후 “조용히 살아가겠다.”라는 말만 쓴다면 더 이상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회유에 선생님은 그들이 강요하는 대로 지문이 찍힌 종이 위에 그 글을 썼다.

그 종이는 김원철 선생님의 사상전향서가 되었다.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1984년.

선생님은 전주교도소에 전향 취소의 글을 담당부서에 제출하였고 그 서류가 제출되자마자 대구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다. 함께 취소를 한 다른 장기수 선생님과 떼어놓고 다시 격리시켜 교화시키기 위해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선생님은 격리된 사동에서 다른 장기수 선생님과 만나 보지도 못하고 혼자 옥고를 치르다

87년 8 · 15 사면조치로 출소하셨다.

남녘에는 친지가 아무도 없어 출소한 직후 바로 사법보호소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줄곧 그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선생님은 사법보호소에서 은행심부름이며 청소며 잡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운동 삼아 근처 약수터의 물까지 떠다 놓으신다 한다.

"나이든 내가 건강하지만 어디서 일거리를 찾아 노동을 할 수 없어 사법보호소에서 잡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할 수 있어 심심하지 않지. 이곳도 예전처럼 간섭하고 그러지 않아서 지낼만 합니다." 하고 웃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표정을 읽으신 듯 "일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하시며 되레 우리들의 걱정을 덜어주셨다.

북녘에 가시면 뭘 하고 싶으시냐는 질문에 "내가 갈 수 있겠냐?" 고 하시면서 고향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 "면회소라도 설치된다면…" 하셨다. 북녘의 생활에서 남녘의 생활로 이어지는 선생님의 한 평생에서 거친 역사의 풍랑을 보는 듯했다.

선생님은 출소 장기수 2차 송환을 요구하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면회소라도 설치되면…" 하시던 선생님은 이젠 중년이 된 아들, 남녘으로 올 때 13살짜리였던 코흘리개를 볼 날을 기다리신다. 그리고 신념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날이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분명 장기수 송환은 분단의 역사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0년 민족사적 쾌거였던 6 · 15남북공동선언이 이제는 성큼성큼 내딛어 통일조국 실현으로 이어져야겠다. 그리고 하루빨리 연로하신 선생님들이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 앞에 언제나 세상을 알아가기엔, 한민족을 알아가기엔 철부지인 나의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 이 글은 대구양심수후원회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3년 7월 9일 현재, 총 75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7월 9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7월 9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7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22명, 노동자 33명, 재야 및 타 19명, 군인 1명 이다.

7월 9일 현재 양심수 75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20명의 26.7%인 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923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75명	22명	33명	19명 (철거민 8 · 노점상 9)	1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20명 26.7%	8명 10.7%	28명 37.3%	22명 29.3%	27명 36%

기결, 미결 분류

구분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기결 4명	2명	-	1명	1명
미결71명	20명	33명	18명	-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

공권력에 저당잡힌 꿈보다 값비싼 청춘의 시절

- 유영업과 이산라의 감옥농성

박정미 前 유뉴스 기자

97년 5기 한총련이 출범식을 전후해 이적단체로 낙인찍히면서 당시 의장이었던 강위원씨가 구속된 직후 의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목포대 94학번 유영업.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름 석자를 한번은 듣거나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 창살 없는 감옥을 7년째 살고있으니까요. 그 기간동안 정치수배해제의 움직임 속에서, 한총련 합법화의 물살 속에서 늘 오르내리던 이름, 행여 '그 사람 아직도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나?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 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지겨울 만도 하지요' 하지만 그는 2003년 오늘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만 같은 더위 속, 그 아스팔트 위에서 7년 전부터 줄곧 외쳐왔던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산라. 2001년 6·15공동선언 1돌을 맞이하는 그 해 단국대 학생회장이자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자동 수배자가 되었던 이름들 중의 한 명. 한국 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해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들 중의 한 사람. 그는 3년째 가족들과 사랑하는 벗들과 생이별을 한 채 지금 유씨와 함께 작열하는 태양 속 노상 감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7년과 3년을 합하면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입니다. 꿈보다 값비싼 시절이라는 청춘을 공권력에 저당잡힌채 정처 없는 수배자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 설치된 노상 감옥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창살 없는 감옥을 살고 있는 그들은 차라리 네모난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 낫다."며 노상감옥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각계단체와 수배자 가족까지 나서 목이 터져라 수배해제를 외쳐왔음에도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에 대한 규탄이며 162명의 정치수배자와 300여명의 11기 한총련 대의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또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유씨는 "11기 대의원 300여명에게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출두요구서가 발부된다면 우리로써는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인권 사망 선고' 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노상감옥과 함께 오는 21일에는 정재욱 한총련 의장 가족을 비롯한 11기 대의원 가족 및 대의원, 수배자들이 서울로 집단 상경해 쇠사슬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법무부 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오는 23일까지도 정부측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이 없을 경우에는 '노무현정부 5년, 한총련 수배자 인권사망 선포대회' 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주인이었던 그들. 어느새 서른문턱을 몇 달 남겨두고 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그 경계에서 정치수배해제를 기다리는 그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분명 그들의 인권은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잃어버린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유영업, 이산라 등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이 7월 20일까지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치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모의감옥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 네이스(NEIS)에 관하여 -

유영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전교조 교사

멋진 신세계

나는 주로 롯데마트를 간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간다. 가서 1주일 동안 우리 식구가 먹을 먹거리를 준비한다. 갈 때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롯데마트 포인트 카드를 내밀며 나의 이용 점수가 올라가서 미래의 어느 날인가에는 내가 원하는 상품 받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 날인가 내가 아파 롯데마트에 갈 수가 없어 배달을 희망한다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필요한 물품만 말하면 된다.

"아저씨, 라면, 냉면, 식용유, 빵, 우유, 두부, 햄, 휴지 좀 배달해 주세요."

이 정도만 말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라면은 수타면, 냉면은 풀무원 물냉면, 식용유는 해표 식용유 2.5L, 빵은 찰깨빵, 우유는 서울우유 1.5L, 두부는 풀무원 두부, 햄은 목우촌 햄, 휴지는 뽀삐 36개짜리… 알아서 척척 배달해 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구? 롯데마트는 이미 나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 살 때마다 내밀던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에는 조회만 하면 나의 장보기 성향, 내가 좋아하는 상표, 먹는 양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무슨 걱정이겠는가. 얼마나 멋진 신세계인가.

내가 학원 원장이라면?

입시의 왕국 대치동에 내가 논술전문학원을 차렸다. 내가 원하는 학생은 수시(대입의 한 종류로 내신성적으로만 신입생을 뽑는 제도)로 대학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수시 입학에서는 논술, 구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논술전문학원은 장사가 될 것이다. 특별히 선발하고 싶은 학생 유형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 명문대를 희망하는 학생,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좋아 수시로 대학가는 것이 유리한 학생, 다른 과목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낮아 논술에 집중적 투자를 해야하는 학생이다.

문제는 이런 학생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이다. 그러나 역시 걱정할 것 없다.

바로 네이스가 있지 않은가. 네이스(NEIS)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뜻하는 말로 학생과 관련된 개인신상기록이 모두 수록된 전국단위 시스템이다. 네이스에는 학생 이름을 비롯하여 생년월일, 주소, 부모 이름, 학생의 취미, 특기,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특별활동상황, 수상기록, 봉사활동 · 체험활동기록, 장래희망,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목 선생님들의 평가) 등 전국 초중고교생의 모든 자료가 몽땅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생의 성적을 뒤적인다. 수우미양가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과목별 석차까지 모두 나온다. 그 학생이 학교에서 몇 등인지, 국어를 특별히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나는 앉은자리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좋은 세상이란 말인가!

다음으로 학생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왜냐구? 아파트 동 · 호수만 알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해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 전세가격을 알아낸다. 이 정도면 그 학생의 부모님 직업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재산 정도, 생활 수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재산 정도는 학원비 부담할 능력의 기본 잣대이니 얼마나 소중한 정보란 말인가!!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이 모든 것은 해킹 해야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구?

해킹은 불법 아니냐구? 세상을 참 순진하게 사는 사람이거나 바보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올해 초 우리나라 모든 컴퓨터가 1박2일 동안 마비된 적이 있다. 그러나 범인을 잡았나? 못 잡았다. 그 잘난 척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마이크로 소프트(MS)사도 해킹당하는 세상인데 어리버리한 교육부 관료가 준비한 네이스 하나 못 뚫겠는가? 우리나라 해커들의 수준을 얕봐도 너무 얕본 것이지.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해커들의 시험장이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 삼성민국

네이스를 담당하는 사업체는 다름 아닌 삼성SDS이다. 〈한겨레 21〉 6월 5일자에 의하면 NEIS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NEIS 사업체인 삼성SDS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정보화 담당자 20명을 지난 2월 9일~16일까지 7박8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으로 로비성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이 또한 얼마나 삼성다운 행동이며, 얼마나 교육부 관료다운 작태인가. 이에 대한 삼성의 대답인즉, 해외연수는 계약 사항이었다나 어쨌다나?

삼성이 전국 수백만 학생의 신상정보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리 좋은 삼성이 과연 그 정보를 정보로만 고이 간직하게 될까?

인적사항의 주소는 아이들 생활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진로지도상황은 학생이 꿈꾸는 미래 직업 선호도를 알려 주어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특기와 취미, 봉사활동의 성향 또한 학생 마케팅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군침 흘릴 교과학습발달은 사교육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먹이감이 아니겠는가.

몇 년 동안 자료가 누적된다면 삼성은 국정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집적한 대한민국 최대의 공룡이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국호도 바꿔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닌 삼~성민국으로.

교사는 뭐하나?

많은 이들이 물을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은 네이스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학생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교사는 네이스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그런데도 손수 입력할 것이냐?' 라고.

우리 학교도 처음에는 네이스에 반대한 선생님이 60명 교사 중 약 45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집요한 공작, 조선·중앙·동아 세 쌍둥이의 전교조 박살내기, 네이스에 대한 본질 흐리기, 여론전에 밀리면서 네이스가 진보 대 보수의 싸움으로 양상이 바뀌었고, 네이스가 교육 집단간의 한 판 싸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소시민의 전형인 교사의 심약함 때문에 지속적인 싸움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 학교도 결국 네이스로 가기로 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PD 수첩에서 네이스를 다룰 때 제목이 "100% 뚫린다"였다. 반드시 해킹 당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사태평이다. 대다수의 교사들도 교육부가 시키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뚫리더라도 결국 교육부가 책임질 문제이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전자 산업의 메카인 일본은 아직도 학생 기록을 손으로 작성한다. 선진국은 학생 정보가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중대 범죄 취급한다.

2003년 대한민국. 이제서야 인권이니, 개인신상 정보 보호니 하는 말이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롯데마트 간다. 내가 좋아하는 풀무원 물냉면 사러.

사랑이신 어머님께…

무더운 날씨 조금 불편하고 짜증나기 쉬운 계절에 신선하고 맑은 공기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좋아지고 있다는 누님 편지와 면회온 친구에게서 들은 '건강소식'은 시원한 바람처럼 상쾌합니다.

오늘, MRI 검진 결과도 좋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웃으며 걸어나올 수 있는 정신과 체력을 키워주신 당신 아들답게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를 사랑하신 마음의 구체적 표현으로 당신 건강 '꼭' 챙기시길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누나가 보내온 보약 드시기, 셋째 누나가 챙겨준 선식 드시기, 그리고 신선한 야채즙 맛있게 드시고 무릎 꿇고 기도 오래하지 마시고 '총알기도'로 하느님과 교신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시면서 아름다운 성가 또는 패티김 노래 부르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싶으시면 편지 쓰시고 그래도 제가 보고 싶으시면 여유있게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언제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회복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식들 건강하게 만나자! 올 여름 바닷가에서 보내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웃으며 이겨내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 오늘은 제 일상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매우 한가(?)할 것이라고 이곳 생활을 추측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상은 매우 (?) 바쁘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하나 저는 한 시간 일찍 5시15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침구정리와 청소를 하고 팔굽혀펴기(손가락) 등의 아침체조와 냉수마찰을 마치면 차분하게 명상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침식사(7시~8시), 설거지, 간단하게 방안 걷기(소화를 위해)를 마치면 본격적인 오전 공부를 시작합니다. 12시 점심때까지요.

점심 먹고 낮시간에는 신문, 잡지 등 최근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볍게 정보검색을 하면서 오후 운동시간(2시30분 전후)을 기다립니다.

운동은 조금 독하게 하는 편입니다. 서울에 있을때도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이 운동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 속이든 한번도 빠짐없이 조그만한 운동장 300바퀴 이상씩 뛰었습니다. 덕분에 양말, 신발이 금방 닳아졌답니다.

아무튼 운동시간은 참 열심히 뛰었었는데 이곳에서도 그 걸음대로 즐겁게 뛰고 있습니다. 대전이 좋은 점은 운동장이 넓어 뛰는 맛이 나고 무엇보다 하늘을 크게 볼 수 있어 시야가 넓은게 좋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평화스러우며 넉넉한 품이 부드러운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말입니다(母也天兄).

즐거운 운동시간을 마치면(1시간) 씻고 오후 학습에 들어갑니다. 저녁때까지요.

저녁식사(6시 전후)를 마치고 방안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청소해도 쓸면 먼지가 쌓입니다. 깨끗한 정리정돈 습관은 단정한 옷차림(衣冠整齊) 등은 아무래도 아버지 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일종의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하루 학습계획 이외 TV시청, 책이나 잡지 보거나 편지, 글쓰기 등.

'자유시간'을 마치면 요가로 몸을 풀고 하루생활에 대한 평가, 반성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평가를 마치고 예전에는 명상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최근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어머니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잠자는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12시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새벽 명상으로 시작하여 저녁기도'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 · 반성은 매일, 매주, 매달,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인 스스로 세운 생활원칙에 맞추어 엄격하게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철저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원칙은 작년 구속된 이래 일관된 생활규율이었으며 구속되기전에도 일상생활 수칙이었습니다. 한가지 차이점은 수배생활은 잠을 적게 잤고 활동량이 훨씬 많았음에도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잠도 더 많이(5시간 30분 정도) 자고 활동력도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피로감이 더 큰 것은 징역은 징역인가 봅니다.

오랜 수배생활 속에 터득한 일상생활의 철의 규율은 '창살없는 감옥'이라는 수배생활을 웃으며 이겨낼수 있게 만든 생활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과 삶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상황, 조건이 어렵다고 타협하거나 한걸음 물러서면 그 한걸음이 두걸음, 세걸음이 되어 종당에느 원칙이 무너지는 삶의 패배자가 되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은바 있습니다.

이 곳 생활이 하루가 되듯 10년이 되듯 '처음처럼' 일관되게 생활 할 것이며 그렇게 생활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몸과 마음은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답니다.

여기에서 나설 때에도 '건강하게' 나갈 것임을 어머니께 약속합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도 약속하십시오.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어 옥문이 열리는 날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시겠다고! 어머니! 저와 약속 하신겁니다.

어머니.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희망과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의 평화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2003. 6. 18

대전에서 이석기 올림

이석기님은 이른바 민혁당조직사건으로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현실에선 수인, 역사에선 자유인인 양심수들에게 띄우는 편지〉

현실은 역사의 감옥이기 십상이어서…

-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 앞에서

유병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옥중의 양심수 님들에게

얼마 전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묘가 있는 남양주의 마현에 다녀왔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 한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는 입구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고 묻힌 마현 땅입니다. 한자가 생긴 이래로 이보다 많은 저술을 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쓴 정약용 선생. 《목민심서(牧民心書)》《경세유표(經世遺表)》《흠흠신서(欽欽新書)》《마과회통(麻科會通)》《모시강의(毛詩講義)》《매씨서평(梅氏書平)》《상서고훈(尙書古訓)》《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상례사전(喪禮四箋)》《사례가식(四禮家式)》《악서고존(樂書孤存)》《주역심전(周易心箋)》《역학제언(易學諸言)》《춘추고징(春秋考徵)》《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맹자요의(孟子要義)》… 끝간데 없이 떠오르는 선생의 책들.

다산 선생의 위대성은 단지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의학, 문학, 민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성은 실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이 세상을 어떤 이로움을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손에 흙 묻힐 줄 몰랐던 양반들과 달리 직접 밭에다 곡식을 심었고 공리공담 대신 기중기를 제작해 수원성을 짓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백성의 편에서 실리와 실용을 중시했던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 관리들이 백성을 위해 해야할 덕목들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저술은 다산 선생이 양반이라는 계급적 이해를 뛰어 요즘으로 말하자면 민중들의 편에 선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따라서 다산 선생에게서 오늘날의 민중적 실천가를 떠올릴 순 없지만 당대에 백성들을 위해 애쓴 실천적 지식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이런 생각들은 당시로서는 파격에 가까운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의 이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마도 천주교였던 것 같습니다. 실천적 개혁을 이끌어가던 다산 선생을 반대하기 위해 보수적 성리학파들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념적 올가미를 들씌워 정치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성리학의 이념적 유일성이 지배하던 시대에 다른 사상은 이단이었고 퇴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변란을 꾀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구요. 이 일로 인해 다산 선생은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으니 지금으로 보자면 분명 '양심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것은 변란이요, 그런 사상은 제거되어야 할 금기로 묶여 있다는 생각은 우리들에게 서글픔을 줍니다.

21세기에 다시 다산 선생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저항 시인 폴 엘뤼아르는 자신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시대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역사에선 늘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모든 이들은 소망하지요. 당대에 금지된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인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 앞에서 '역사에 대한 반역을 택하느니보다 현실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길이 안주하고 길드는 길임에 반해 역사의 길은 옳음이나 진실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새롭고 변화무상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꿈을 구속하고 막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천주교를 수용하고 있지만 다산 선생이 살던 조선 사회는 그것을 호환, 마마보다 무섭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부패하고 옹고집처럼 변화할 줄 모르던 시대에 실학사상 또한 기득권에 도전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치부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천주교를 사교(邪敎)라며 몰아붙였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빨갱이 사냥'을 했던 겁니다. 다산 이외에도 그런 일은 많았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혁명가와 개혁가들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당대에 평가받지 못하고 외려 반역자가 되었습니까.

'천하에 왕후 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 라며 노비해방을 부르짖었던 고려시대 만적의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당대에선 반역이요, 역적이요, 효수당할 일이었습니다. 또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드높이 들었던 갑오농민전쟁의 전봉준 장군과 수많은 농민군들은 부패한 조선 봉건 왕조의 입장에서는 외세라도 끌어들여 척살해야할 만큼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까지 갑오년의 항쟁은 '동학난'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실을 당대가 수용하지 못한 것의 예는 수도 없이 읊을 수 있습니다. 일제하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독재 정권과 맞서 목숨을 불살랐던 민주투사들 모두가 당대에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는 광주항쟁도 광주사태라고 일컬으며 '빨갱이의 난동'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 진실의 길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꾸만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좀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역시나 이 현실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안락과 편안을 모르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만 머문다면 인간의 존재는 하냥 작아지고 외딴 섬에 떨어진 로빈슨크루소가 될 뿐이겠지요.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기대어 人이 되었다면 마땅히 인간다운 삶은 자기를 뛰어넘어 우리를 추구해야하는 것이겠지요.

옥에 갇힌 님들이야말로 자신을 넘어 우리로 향하는 삶을 몸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꿈이고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도록 은연중에 회유하고 유혹하고 압력을 행세할지라도 본디 인간다움에 이르고자 하는 꿈을 버릴 순 없지요.

양심수, 소금같은 사람들

새로움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역사와 함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옥에 갇혀, 이념의 덫에 걸려 양심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안락이 아닌 만인의 꿈을 꾼 사람들이 있어 인류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와 부처, 간디와 마더 테레사나 모두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뱃속까지 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이름을 커다랗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길 속에서 인류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님들 또한 앞에서 열거한 아름다운 이름에 속하는 겁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님들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욕심으로 넘치는 인간의 세상은 썩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3%의 소금이 이 거대한 대양을 썩지 않게 하듯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예찬하면서 다산의 묘 앞에서 하나 더 생각해보는 것은 '전화위복의 삶' 입니다. 고난에 찬 유배생활 속에서 다산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수백 권의 빼어난 저술을 묶어 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신산한 삶으로부터 더 높은 이상을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님들이 놓인 곤고한 삶의 터전이 비록 어려움일 수 있으니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새롭고 향기로운 꽃이, 인간의 내음과 얼굴을 한 꽃이 피어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일상은 고단하고 역사는 때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우리 인간들 또한 만만치 않은 힘으로 저 멀리 내다보이는 강물처럼 유장하게 흘러왔습니다. 감옥이라는 삶의 유배지에서 스스로 고사되지 않고 새로운 역사의 잉태를 거듭하며 한 방울의 순정한 물이 되어 역사의 마르지 않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질 때를 준비하고 있을 님들.

저는 님들에게 마현 땅에 누운 다산 선생과 함께 서울로 서울로 흘러가는 강물은 끝없다는 걸 보고 왔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관점이다

이일규 양심수후원회 회원

역사는 관점이다. 언젠가 한상권 교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역사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치열한 생존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2003년 7월 한상권 교수님의 회원 역사강좌를 찾아가는 길…

몇 가지 물음을 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약간 늦게 일어난 아침, 눈앞에서 놓친 전철을 원망하며 서 있었던 15분여의 시간, 늘 그렇듯이 오늘도 나는 한 시간쯤 늦는 지각생으로 만남의 집 계단을 올라선다. 긁적긁적, 이놈의 뒤통수는 왜 이리도 간지러운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회원들의 많은 뒤통수들이 눈에 들어온다.

와~ 쬐끔만 일찍 왔으면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내 뒤통수가 간지럽지는 않을 텐데…

진지한 모습으로 보도연맹 관련 VTR을 시청하는 회원들. VTR이 끝나자 한상권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된다.

현대사에서 1,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었다는 한국전쟁.

민족사의 비극앞에 올바른 역사관점을 가지지 못한 지배자들에 의해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제 2 전선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더 많았다는 사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죽여놓고 골짜기에 대충 묻어버렸다 하여 '골로 간다' 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반세기 동안 부모와 형제를 그렇게 보내 놓고도 침묵을 강요당했던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은 어떠했을까.

전쟁의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오셨던 장기수 선생님들, 그리고 그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북 · 미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수구세력들은 연일 북핵이니 뭐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걸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그들은 역사를 무슨 관점으로 보는 것일까.

역사는 흐른다는 말이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한줌의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역사를 보려하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 앞에 그들은 분명 무릎을 꿇고 사죄할 날이 올 것이다.

진지한 눈빛의 강의가 마무리 되어가는 순간, 오늘 나는 내가 살아가는 원칙을 한번더 각인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다.

강좌시간에 충실하였다고 나름대로 자평한 나는 힘차게 뒤풀이 투쟁에 결합하기 위해 3,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강좌 뒤풀이 장소인 JSA로 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단골 JSA가 화재가 났나보다.

입구가 굳게 닫혀있는 JSA를 뒤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다. 진정으로 불타야할 것은 휴전선에 설치되어 있는 그 JSA가 아닐까? 휴전선의 JSA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는 날,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어느 것이 되든지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것은 역사를 알고자 하는 나의 몫이기도 하다.

방학으로 8월 강의는 없다고 하니, 다음 9월에 있을 회원 역사 강좌 시간을 기다린다.

6월의 수락산

김재선 양심수후원회 회원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후원회 산행일을 맞았다.

명색이 후원회원이지 후원회 활동을 한 것이 없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터라 좋아하는 산행만큼이라도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획된 '백두대간 당일 종주 산행' 이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로 잡혀서 우리 후원회 산행과 늘 겹쳐서 그마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달은 넷째주 일요일로 산행이 정해져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저 반가운 회원들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인지 10시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다. 당고개역에 도착하니 가장 멀리 사시는 신현익 산행 대장님이 벌써 와 계신다.

바로 김교영, 권오헌 선생님이 도착하시고 변의숙, 송창학, 창학씨 따님, 이창희 회원이 차례로 도착했다. 참석 인원은 총 8명, 보기 드물게 단출한 식구다.

오늘은 행사가 두 군데나 더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갈라져서 그렇다고 옆에서 누가 귀띔을 한다.

당고개역 주변에서 대충 시장을 보고 좋은 날씨에 감사하며 정상으로 향했다.

언제 뵈어도 정력이 넘쳐 보이는 김교영 선생님은 수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힘차게 산을 오르신다. 50여년 전 조국통일과 민족해방을 위해 풍찬 노숙하면서 남도의 산하를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잠시 상상할 수 있었다. 특히 송창학 씨의 예쁜 따님이 생각보다 등산을 잘해서 매우 고마웠다.

수락산 주능선에 올라서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수락산이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계속 보존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 하나, 민족공조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 땅에서 만약 양키놈들이 불장난이라도 벌인다면 수락산인들 온전하겠는가. 이 땅을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는 길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뿐임을 자문자답 해봤다.

수락산 등산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양심수후원회 회원은 꼭 정상을 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일반 등산인들과 달리 자연에 대해 매우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게 8부 능선 쯤에서 하산하기로 하였다. 하산 길에 수락산에서 가장 좋은 명당자리를 잡아놓고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다. 맛난 음식과 막걸리로 배를 불리고 배낭도 가벼워지니 일석이조다.

이창희 회원의 조흥은행 파업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은 다음, 권오헌 회장님의 진행으로 대북 송금문제 등 시사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도 했다. 며칠 전에 보았던, 6 · 15선언 3주년을 축하는 못할망정 측근들과 어울려 희희낙락 골프나 치는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체 분단된 나라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 어떻게 성사된 6 · 15 공동선언인가?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정말 한심하다.

내려오면서 만나는 계곡에는 가뭄으로 인해 계곡물이 연결되어 흐르지 못하고 군데군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 그것도 물이라고 더운 날씨에 행락객들이 참지 못하고 다 말라가는 바닥에 올챙이떼 같이 애어른 할 것 없이 웅덩이 속에 뛰어들어 분탕질을 한다. 그 웅덩이 바닥에는 플라스틱 호수가 무수히 깔려 있다. 웅덩이 물을 필요로 하는 계곡 아래 널려 있는 음식점들의 짓이다. 그래도 음식점에는 손님들로 만원이다.

우리 산행의 필수코스며 좋은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뒤풀이 시간. 변의숙씨와 송창학씨 부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떠나고 신현익 대장님이 안내하는 생맥주집에서 시원한 맥주와 안주로 포식을 하며 아쉽지만 산행을 마감했다.

7월 6일 '청와대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김민정 양심수후원회 회원

허리, 다리 부실한 숙희가 어설프게 일요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더군요. 완주는 무리겠다 싶었지만, 중간에 가는 방법도 있고 하니 함께 하기로 했지요.

'청와대 도보순례' 농성단장인 최지호님께 전화를 했더니 아침 8시 30분까지 연대로 오면 되구, 9시에 정확히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싹 긴장하고 숙희와 8시20분에 연대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난 케익, 숙희는 예쁜 꽃을 준비하고서요.

젊은 누나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필용이 생일이 7월7일, 오늘이지요? 고생하는 동생에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왜 하루 빨리 했냐구요? 오늘은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죠)

아침 일찍이라 수배자 동지들이 모두 잠을 널부러지게 자고 있어, 인사는 못하고 짧은 쪽지로 필용이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함께 한 인원은 총26명입니다. 36일째를 맞은 도보순례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25km를 걸었습니다. 오전에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황홀하던지… 세상에, 제가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청와대 앞을 지났다니까요. 그것도 20대 초반 시위진압대인 전경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순례단이 함께 청와대 앞을 지나면 집단행동을 한다고, 북악산 입구까지 한명씩 한명씩, 그것도 50m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요, 거참 기분 묘합디다.

돌담길 아래를 전경과 둘이서 거닐다

우리는 이석기동지를 비롯한 양심수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걷고 있을 뿐인데… 그들의 과잉반응을 보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위협적

인 거구나', 또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명씩 50m이상의 간격으로 걸어야 하니 당연히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지요.전경과 함께 북악산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숙희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고 웃기던지… 하하하…

1시 30분, 그 즈음이었던 같아요. 북악산 팔각정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 진짜 맛있는 김밥 (예전 소풍가서 먹었던 김밥맛과 비슷)- 이후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영옥 선배님이 '가무'를 무지 좋아하시는 듯, 단체마다 나와서 소개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숙희와 나는 어쩌지? 하는데 순식간에 우리 차례가 왔어요. 숙희와 애써 눈을 피하다 일단 일어나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정이구요." "저는 김숙희입니다" 그 다음, 후원회 소개를 어떻게 해야하나? 하영옥 선배님께서 앞쪽에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보고 계시더군요. 용기를 내서 하영옥 선배님께 후원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조금 미적거리시다 선배님께서 느끼는 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감동이었습니다. 완벽했지요. 저는 한술 더 떠 "하영옥 선배님께서 느끼신 것 이상의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잘 했지요? 모두들 박수

—"짝짝짝"

소개 시간이 끝나고, 춤선생이 등장했습니다. 춤선생님 성함은 '하영옥'—

와~, 엄청났어요. '해방춤', '농민춤' 어찌나 흥이 나던지. 땀이 삐질삐질 솟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수받았으니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춤선생으로 저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각정에서 한숨돌리고 내려오는 북악산길은 신록으로 가득했습니다. 흙길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동지들과 함께 하는데, 아스팔트면 어때요?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구호외치며 다리는 아팠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정도에 연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야 처음 도보순례에 참여했지만, '동지의 석방'을 위해 매일 매일 그 길을 걷고 있는 하영옥선배님, 최지호 단장을 비롯한 동지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원회 동지 여러분!

모두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각자 시간될 때 가는 '게릴라전'도 좋을 것 같아요. 김민정이 이 정도 느꼈다면 다른 후원회 동지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경험이 될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보순례단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릴께요.

www.yangsimsu.net - 분위기 파악하세요(^^)

마지막으로 준비물은,

1. 소정의 밥값 - 3000원 이상

2. 마스크 - 터널을 2개 통과하는데 먼지 엄청남. 그 먼지 다 마시면 일찍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음.

3. 모자 - 어제는 덜했지만 햇볕이 강하면 곤혹스러울 것 같음. 그리고 도로를 끼고 가는 길이 있어서 반사가 심함. 썬글라스도 준비하면 좋을 듯함.

와! 김민정답지 않게 글이 길어졌습니다!

● 〈이석기 등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청와대 도보순례농성〉은 올해 3월22일부터 37일간 이어졌던 '양심수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걷기 전국교도소순례'에 이어 5월12일부터 연세대와 청와대 앞을 돌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알립니다

8월 산행, 회원강좌 없습니다

- 8월 회원 산행은 2003년 회원 여름수련모임이 있기에 쉽니다.
  여름수련모임의 장소, 시일 등은 다음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8월 30일~31일로 잠정 결정하고 있읍니다.

- 8월 한상권 교수님의 현대사 강좌는 여름방학으로 쉬게 됩니다. 강좌내용에 대한 시험이 있을 예정이니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국대 법사회학회에서 양심수를 위한 후원주점 수익금 1,2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회 전국연합에서 3만엔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라영 회원님께서 500,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양심수후원회에거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에 보태쓰라고 1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힘의 균형에서 나온 과도기적 정권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정치세력, 노선에 대한 평가는 그 정치세력과 노선이 딛고 선 정치사회적 환경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먼저 노무현 정부가 딛고 선 사회역사적 배경과 과제를 선차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위 작업에 기초하여 노무현 정부 출범 4개월 여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최대 변수 - 통일정세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가장 커다란 변수는 역시 한반도 통일정세이다. 이는 북핵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6.15 공동선언의 운명 등과 직결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2002년 말부터 첨예화된 북미간의 대격돌의 핵심은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을 둘러 싼 정치적 각축이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를 주선으로 여타 정치세력이 합종연횡하는 어지러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위 대결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쟁이고, 둘째는 미국의 요구처럼 先 핵 포기-경제지원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 셋째는 핵 문제와 포괄적인 평화실현(북미 수교, 불가침조약, 북일 수교 등)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필자가 보기에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만큼이나 둘째와 세 번째의 갈림길 또한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귀결된다면 주한미군 합법화-분단고착화-한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고, 세 번째로 귀결된다면 주한미군 지위의 약화-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의 전면화-한미일 동맹체제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함과 함께 두 번째 경향을 제어하고 세 번째 방향으로 상황을 귀결시켜야 한다.

이 다양한 경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현재 국면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북미 대결에서 이미 북은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북은 한편으로는 핵에 의한 억지력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일괄 타결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로써는 두 번째 길을 강요하고 있고 향후 정세 발전에 따라 전쟁이냐 아니면 북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를 놓고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미 · 일에 대북 압박 면죄부 부여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통해 선 핵 포기-경제지원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려는 미국의 구상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민족 공조, 대미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현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구상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5~6월의 미일간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선의 선택은 평화적 방법, 대화와 협상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평화적 방법 이외의 길 '추가적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에 합의해 줌으로써 미일 정부에게 대북 압박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 선택의 후과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크다. 첫째, 대미 카드를 상실함으로써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말았다. 90년대 중반 북미관계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국

면에서 김영삼 정부가 보여 준 친미적 행보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결정적으로 좁혀버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둘째는 친미보수수구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킨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적인 젊은층의 지지를 배경으로 당선되었다면 최근의 대미 추종적인 자세로 인해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

발목잡는 경제문제

다음으로는 경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97년 말 IMF 관리 체제에 편입된 이후 - 6.7%로 하강했던(98년) 한국경제는 99년부터 극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했다. 99년 10.9% / 2000년 9.3% GNP 성장 / 98년, 99년, 2000년 각각 경상수지 흑자 400억, 240억불, 120억불 등 99년, 2000년의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99년, 2000년의 경제 성장은 일종의 착시현상 또는 거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대외 변수가 유리하게 작용했다. 93년부터 장기 호황에 들어 선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유휴 자본을 끌어 들이며 8년에 걸친 장기 호황국면을 이끌었다. 문제는 유휴 자본이 IT 산업 등에 집중된 반면 이들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2000년 봄부터 거품이 파열되었다. 99년, 2000년의 한국 경제 호황은 미국 거품 경제 막바지와 연동된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둘째, 경제 구조의 악화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내구력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수입 감소와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 환율 변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재,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자본재, 부품의 수입 감소는 한국 경제의 기본 체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는 공적 자금 155조 투입과 코스닥 붐 등에 의한 일종의 거품이었다.

2000년부터 미국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하자 한국경제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1년 3%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자 김대중 정부는 내수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 산업을 장악한 해외 금융자본의 수익 확보 전략과도 맞아 떨어져 유례없는 가계, 카드 대출 붐을 조성했다. 시중에 풀려나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IMF 관리 체제 이후 경제력을 상실한 중서민층의 경제 상황의 악화를 간신히 막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로또 열풍 등이 한국 경제를 휩쓸었다. 2002년 10월경부터 4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을 우려한 정부가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수 시장이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시적 불황아닌 구조적 문제

최근의 한국 경제 위기는 이른바 북핵문제나 이라크 사태와 연동된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부실과 구조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산업은 설비 투자 감소로 장기적인 경쟁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부상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대출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실업, 3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농업 위기, 사회범죄의 만연 등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물려받은 한국 경제 상황은 두 가지 양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하나는 IMF 관리 체제 이후 해외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수 진작, 남북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등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 경제는 아마도 남미의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도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만만치 않은 미래가 예상되지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체적으로 해외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친 세계화 노선과 맥

이 닿아 있다. 반면 긍정적인 요소는 동북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구상 등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의지와 각오이다. 동북아시아 개발은행, 휴전선을 관통하는 철도, 가스송유관 매설 작업 등은 미국과의 대결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의 친미적인 행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의 절박성,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의 혼란

세 번째는 민주개혁과 민주주의 확대에 관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 민주개혁이나 민주주의의 확대 문제는 현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비전의 제시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형성 작업과 연동되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는 통일, 경제 정세에서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주체의 문제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진행되는 민주개혁 노선은 혼란을 조성할 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첫째, 올 봄의 특검제 논쟁이 그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제는 권력형 부정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6·15선언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정치적 현안이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이 후과로 보수수구세력의 노골적인 반민족적 정치 선동이 신문지상은 물론 거리에까지 공공연히 전개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둘째는 민중운동과 관련된 대응의 문제이다.

FTA를 둘러 싼 농민들의 극한적인 저항, 화물연대 파업 등은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의 측면이 강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농업의 조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화냐 한국 농업의 생존이냐의 양단의 갈림길이 있을 뿐 중간의 선택이 없는 사안이다. 화물연대 파업 또한 IMF가 개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서민 폭동의 양상과 유사하다. 조흥은행과 철도 파업 등도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최근의 노농 대중운동이 생존권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노농 대중의 생존권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재편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뛰어 넘어 노무현 정부의 근본 철학, 비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합리성, 토론 문화, 절차적 민주주의는 혼란과 무원칙을 동반할 뿐이다. 화물연대, 농민들의 투쟁, 조흥은행 파업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해서만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과도기적 정권

노무현 정부가 딛고 선 정치사회적 조건과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평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현 상황은 통일정세, 경제 상황으로 보나 민족사의 대전환기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출현은 일종의 힘의 균형속에서 탄생한 과도기적인 정권이다.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 낸 것은 붉은 악마, 촛불시위로 이어져 왔던 청년개혁층의 강력한 힘이다. 반면 이들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의 입지를 뛰어 넘고 있다. 촛불 시위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2년 말 노무현 후보는 촛불시위의 자제를 요구했고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이유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셋째는 북미 정세, 한국 경제 상황 등 보다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현안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한국 대선은 북미 정세, 한국 경제 상황 등이 첨예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이전에 치러진 일종의 전초전이었다.

국민 대중은 노무현이냐 이회창이냐를 압도하는 근본적인 정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언

이기욱 양심수후원회부회장, 민변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실태

1969년 스물 하나 나이에 저는 병역법 위반으로 10개월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어둡고 퀴퀴하고 둔탁한 1.3평 짜리 방이던가.

똥덩어리가 텅텅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방, 빈대 핏자국이 종횡무진으로 그어진 방, 여섯 명이 엇갈려 누워 자느라 발가락이 입에 닿던 방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고생이긴 했지만 인권유린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1974년 스물일곱의 나이에 저는 또 병역법위반으로 3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3년 구형에 1년 6개월을 언도 받았지만 저의 소신과 양심을 말하고 싶어 항소를 하였더니,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3년을 언도하였습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를 쓰면서 소신과 양심을 말했지만 휴지조각처럼 내던져졌고 징역살이만 더 하였습니다. 저는 앉은뱅이로 3년 세월을 방 안에 갇혀서만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 만 스물아홉 살이 되었고, 새벽 네시 대전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자유를 꿈꾸던 저를 검은 가죽잠바의 병무청 직원이 또 징집영장을 들고서 굳은 얼굴로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 밖을 나서 또다시 붙잡혀 가는 아들을 보며 저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32사단 군부대로 실려 갔습니다.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병역법상의 전과는 전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 징집할 수 있다", "고졸은 만 28세, 대졸은 만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집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답니다. 의예과 1년 중퇴인 제가 의대4년 졸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2사단에서는 병역법 전과가 있다고 누범가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징집할 때는 전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징집하더니, 형을 줄 때는 전과로 인정하였습니다. 1977년, 그리하여 항명 최고형 2년인 것을 두 곱으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가슴을 군화발로 걷어차서 뒷통수를 시멘트 바닥에 메치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곳이 공의의 법정이었는지 아프리카의 초원이었는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며 존중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에의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조국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존과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조국이 가져오는 생존과 평화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이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 것이기에 결코 열정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무엇이 최선이었는지는 시간과 역사가 드러낼 일일 것입니다. 법의 이름은 살아있는 제 몸을 시체를 염하듯 단단히 묶어 관속에 넣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에의 충성의 이름이 사방에서 불타올라 저의 청춘을 불태워갔고, 세월의 이름은 화장터 굴뚝 위의 냄새 같은 것을 제 몸에 남겼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6호,
병역거부자 정춘국의 수기 중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과 군형법에 의해 구속수감되며 현재 약 1,1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지난 50여 년간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하여 해마다 수백명씩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기피자이며 이단자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들으면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하거나 집회나 시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이 수십년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50여년간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만명의 희생 끝에 2001년 12월 불교신자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래 금년 4월 청년불자 김도형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더 이상 특정종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분단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의 냉전적 사고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반전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급속하게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반전 평화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으로 인해 독일, 이스라엘, 대만 같은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양심수후원회가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수인가?

양심수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양심수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하에,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보다 많은 다수의 이익, 공동선, 사회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양심수는 또한 자신의 행동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확신으로 활동하다 수난을 당하기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양심수에 대한 국제인권 기준이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나라마다 민족마다의 특수한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사회환경적 조건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외세와 분단 독재와 독점체제에 맞서야 했던 이 땅에서의 양심수는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민중의 생존권보장과 사회정의 사회진보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심수후원회 사업계획을 보면,

-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 수배 해제
- 옥중 양심수 지원사업
- 출소 장기수 지원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양심수후원회의 회칙이나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적 악법과 관련된 양심수와 노동자, 학생 등 소위 시국사범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수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심수후원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심수의 개념 규정을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당연히 양심수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확신을 가진 양심수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며, 국제인권규약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당연히 양심수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수후원회의 지원대상인가?

이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수후원회의 후원대상인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불과 십오년전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해 "간첩이 양심수라니 도대체 웬말인가?" 라는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양심수후원회가 탄생한 이래 양심수후원회는 숱한 양심수와 장기수 선생님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다.

나는 병역거부자 정춘국씨의 수기에서 장기수 선생님들이 당했던 고초와 억울함과 빼앗긴 인생을 고스란히 느낀다.

이제 양심수후원회는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이 반전 평화운동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후원이나 연대 활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양심수후원회의 양심수 사면 복권 활동의 범주에 마땅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자료: peace.jinbo.net 참조〉

할머니

이진 양심수후원회 회원

후원회로부터 '나의 삶 나의 일터'라는 꼭지의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의 일터… 회사에 취직한지 일년이 넘었건만 부끄럽게도 내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이라면 할머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가 뽀뽀를 합니다. 때때로 할머니는 이런 나를 귀찮아하십니다.

"귀찮다. 저리가거라." 할머니께서는 얼굴을 찡그리시며 귀찮아하시지만 나는 이런 표현들로 하여 할머니가 내마음을 느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 이래서 또 하나 알았군요. 내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늘 서툴기만 한 나는 이제야 조금씩조금씩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도 정신없이 바빴던 데다 집에서도 이래저래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면 나는 할머니 앞에 주저앉아 투정을 부립니다.

"할머니 나 힘들어. 졸려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응, 고단할텐데 어서 자거라."

이것저것 바쁜데 자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웃음이 납니다. 할머니와 장난을 치고 나니 한결 힘이 나는군요. 남들이 보면 흉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물다섯이나 된 다 큰 처녀애가 편찮으신 할머니께 응석이며 투정이라니요.

오늘은 자리에 누우신 뒤로 잘 웃지 않으시는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할머니 앞에서 춤도 추어보고 이상한 표정도 지어봅니다.

"할머니 재미없어?"

"응."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으신 할머니 앞에서 나는 좀 머쓱해집니다.

어! 할머니께서는 이 표정이 마음에 드시나봅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십니다. 할머니의 웃으시는 모습이 신기하고 좋아서 자꾸자꾸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시는 표정을 지어보입니다.

어느새 할머니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잠드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혹은 할머니를 봐드리며 때때로 생각에 잠깁니다. 이십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도 어린 진이에게 이렇게 해주셨겠지요. 나는 흉내나 내고 있을 뿐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시던 그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신기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거니 받거니, 돌고 돌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지요.

철없던 지난 시간에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봐드려야한다는 것이 때때로 짜증이 나서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 할머니 속에 녹아있어 어렴풋이 보이는 세상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단순히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로 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서툴렀던 저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법을요. 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할머니의 말투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가 새로움으로 와 닿는 내게는 순간순간 스미는 놀라움과 새로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깊이 잠드신 할머니 옆에서 잠을 청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하고 뿌듯한 시간입니다. 이제 잠을 청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2003년 6월

01 한총현 11기 출범식이 새벽 박재익 서총련의장 사회로 열림. 한총련 문예단의 사전행사에 이어 사회단체원로 소개, 지역총련 소개 그리고 출범식 축사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순으로 진행되었고 범청학련 해외본부 축사도 있었음. 이어 한총련 정치수배 가족들 입장. 박제민군의 어머니 김성옥님의 한총련합법화,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발언이 있었음. 미디어영상 페스티벌,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의 공연등도 있었음. 2부행사는 한총련 11기 특별위원장 및 의장 추대식이 거행 - 박재익 서총련의장의 사회로 허환희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이영훈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우대식 대변인이 출범선언문 낭독 등이 있었고 마지막 행사로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 추대식을 거행 - 사전 문화의전행사에 이어 정재욱 의장을 맨앞으로 특별위원장과 지역총련의장이 등단,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하다. 진보는 빨갱이가 아니다, 반미는 선동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법칙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간적인 움직임이다. - 조국통일운동에서 6·15공동선언 고수·이행의 중요성과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서의 연대성 등 강조 - 이어 지역총련의장과 특별위원장들이 한총련의장을 중심으로 11기 한총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의발언과 정재욱의장의 11기 한총련 출범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모두마침.

- 오전 양심수후원회원들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후원주점 정리하다. 이틀밤을 새면서 애쓴 회원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 한총련 주관으로 '6·15공동선언 이행, 미국의 대북정대정책 철회,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노무현대통령 자주외교 촉구, 민족자주 결의대회'를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열리다. 한상렬 상임대표 대회사, 이영훈 한총련 조통위원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의 결의발언과 유선희 서청협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대회를 마친 다음 2천여명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정리해산하다.
- 용산 한·미연합사 정문앞에서 자통협, 평통사, 한총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공동으로 '폴 월포워츠 미국방 부장관 방한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 동두천터미널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대행진단과 한총련 학생등이 함께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촛불대행진단과 함께하는 동두천 미2사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무죄재판 무효, SOFA 전면개정, 한반도 전쟁위협반대, 오만한 미국 규탄 등이 있었음.

02 월포워츠 미국방부 부장관은 국회국방위 소속위원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오찬모임 등에서 '한국 국방비를 늘린 것을 요청하다. 미국은 2004~06까지 110억달러 전력증강계획과 150항목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강매를 암시하다.

03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국민준비위원회 주최로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기간 선포 및 남북해회 동시 촛불행사 제안 기자회견'을 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의 취지 및 홍근수 공동준비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범국민행동지침 등이 발표되다.

- 경찰청에서 서총련 대표 덕성여대 배혜정 인문대 학생회장이 김광대 수사2담당관과 면담을 하며, 5·18사건관련 한총련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굴욕외교에 항의한 것은 정당하며 출두요구서, 체포영장 발부 등 부당성 지적 - 이날까지 출두요구서 48명중 28명이 한총련이고 전국공무원노조원 14명, 여중생범대위 6명 등이었음.
- 민주당의 김근태, 설훈, 배기선, 심재권, 이미경, 송영길 의원 등 30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의 특검수사가 진실규명 보다는 실정법 잣대로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좁은 안목의 특검활동이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특검팀의 수사방식을 비판하다.
- 주한미군은 6월안으로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최신형 패트리엇(PAC-3) 300발을 추가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힘.(600백발에서 900발) 또한 21대의 AH-64D 최신형 아팟치헬기 '롱보'를 들여온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력증각 실전배치 만행을 하다.

04 국방부 정문앞에서 자통협 평통사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공동으로 '미래 한 · 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김종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창대표 규탄발언, 홍근수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 마치고 권오헌, 변연식, 백석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 전달하다.

서초동 정평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심재환 변호사와 하영옥, 이경진, 권오헌 등 함께 이석기씨 석방대책 논의. 이석기씨 석방대책위 결정키로 하다.

금강산사랑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수사가 남북관계 및 금강산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다.

05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147개 사회단체 공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한 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열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성실한 과거청산, 일본군국주의 반대, 동북아 평화안정에 노력, 한일 자유무역협정 합의반대 등 강조하다. 정광훈, 신승렬, 한상렬 의장 등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하다.

민가협 474회 목요집회. 여는말- 임기란 전상임의장,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수배자 가족 발언 - 김낙희(이산라 어머니), 한총련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등 발언(권오헌)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 · 15 공동선언 파탄내고 민족공조 훼손하는 대북송금 특검수사중단 촉구대회' 를 열다. 한상렬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권오헌, 윤한탁(실천연대), 이호정(서울대) 등 중단촉구 연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특검에 중단촉구서한 전달하다.

연세대 교정에서 한총련 정치수배자모임과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후원주점' 이 마침에 따른 평가와 뒷풀이를 하다. 이 자리에는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 10여명이 함께하여 단국대후원주점 이익금 120만원을 양심수후원회에 전달하였음. 이득형, 송창학, 이창희, 김미성, 이승미, 김숙희, 고광희,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권오헌 등이 함께함.

경찰청은 지난 26일자로 각지방 경찰청에 '위기관리를 위한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 실시계획' 이라는 공문을 보내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일간 훈련용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발표. 경찰관계자는 '난동에 가까운 불법시위나 집회가 있을 경우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경찰당국이 최루탄을 사용할 것을 밝혀 과잉방어로 비판이 일다.

06 동국대 교수식당에서 홍근수목사님의 '희한한 나라' 출판기념회가 열렸음. 리영희 교수의 축사, 강정구 교수의 서평 등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 전국화, 대중화, 전문화 기치를 들고 6개의 지역조직을 토대로 재창립하고 홍근수목사와 문규현신부를 상임대표로 뽑음.

의정부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에서 6 · 13 효순 · 미선 1주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미군고압선 희생자 고 전동록씨 1주기 추모대회 및 미2사단 인간 띠 잇기대회 '를 열다.

07 탑골공원 앞에서 '효순 · 미선 1주기 추모관련 학생행동의 날' 결의집회가 열리다. 건국대 2003년 총학생회장 사회로 숭실대 백재훈 총학생회장, 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 성공회대 정병훈 총학생회장 등이 결의발언을 했고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이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1주기 추모 공동준비위원장으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연대사를 하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6 · 13 추모준비위원회 주최로 6 · 13 10만 준비위원 돌파보고 및 오만한 미국규탄 미대사관 인간띠잇기대회가 열리다. 강성훈 실천단 집행위원 사회로 권오헌 공동준비위원장의 여는말, 이용대 집행위원장의 10만 돌파보고,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마치고 미대사관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많은 참가자들 중경상을 당하다. 오히려 경찰은 장현욱 학생을 불법강제연행 폭행을 가하여 은평경찰서로 연행하다.

08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 교수의 현대사 역사강좌 '6 · 25전쟁-2' 강의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30여명의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있었음.

7일 미대사관 인간 띠 잇기 대회에서 강제연행된 장현욱씨를 은평경찰서로 면회가다. 장현욱씨는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제시로 받지 않았고 폭행을 당해 오른쪽 어깨에 타박상과 붉은 반점, 왼쪽목 부위에도 폭행흔적이 있었고 안면타박상 등이 있었

음. 경찰당국에 강제연행과 폭행사실에 강력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다. 범남본 나창순, 이규재, 범대위 김종일, 후원회 권오헌 등 면회하다.

- 서대문 독립공원, 민족민주열사 14회 추모제 준비현장에서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열다. 범국민추모제 준비점검과 추모제 진행순서 등 정하다.
- 강만길 총장, 고은 시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와다 하루끼 도쿄대 명예교수, 오에 겐자부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한·일 양국 지식인 211(한국 114명, 일본 107명)명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양국에서 동시 발표. 신영복 교수, 김지하 시인 등 한국쪽 인사들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북한은 핵무기개발 포기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창현 부장판사)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기소된 ㅈ대 의대 이아무개 교수에 징역 10월 자격정지 11년 집행유예 2년을, 경기ㅈ보건소 전소장 권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다.

09 미대사관 앞에서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국민준비위원회 주최로 '광화문 촛불시위 탄압규탄 및 6·13 1주기 추모대회에 즈음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다. 김종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취지말, 오종렬 규탄성명서 낭독, 채근식 대국민호소문 낭독 등이 있었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원초(原草) 박순경박사 팔순 기념문집 '과거를 되사려내는 사람들과 더불어' 출판기념회가 열렸음. 김상일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약력소개, 비디오상영, 권영길, 주재용(한신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의 축사, 유춘자의 축하문집 증정, 안혜경의 축가, 강정구, 노정선 교수의 서평 등이 있었음.
-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14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2003년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위한 범종교인 추모제가 열렸음. 문대골 목사님의 추도사,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인사말, 효림스님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10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1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행사위원회 주최, 계승연대 민중연대, 통일연대 주관으로 제1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열리다. 한충목 집행원원장 사회로 오종렬 공동상임대표의 대회사 단병호, 정현찬, 한상범, 정재욱(한총련의장)등의 추도사 남상헌 공동상임 대표의 결의문 낭독, 강민조 유족대표의 인사말, 참가자 분양헌화로 1부순서 마침. 추모제 2부는 최광기 사회로 꽃다지, 이정렬, 윤미진, 우리나라 등 공연. 이유미의 춤 그리고 열사?희생자 가족들의 촛불의식과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을 합창으로 모두 마침.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6월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동 대한성공회 프란시스코교육관에서 6월항쟁 16돌 기념식을 갖고 '6월항쟁 16주년에 즈음한 시국선언'을 발표하다. 선언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국가보안법 등 만민주악법 폐지 등을 촉구.

11 향린교회에서 3기 통일연대 2차 대표자회의를 열다. 보고안건에 이어 7·27 50돌 사업계획 심의의건, 6·15 민족통일 대축전 상황에 관한 건, 당면한 재정상황 및 대책마련 건 등 논의하다.

12 최기문 경찰청장의 최루탄 사용발언과 관련 민가협 회원들 경찰청 항의방문. 경찰청장 면담 요구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핑계로 박수현 경비과장과 조현배 계장이 나와 '장비점검' 등 지시가 잘못 전해진 보도라며 결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명서를 민가협에 제출하다.

- 향린교회에서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 국민준비위원회 주최로 고건 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준비위원회의 입장과 대회운영 기조발표 등 기자회견을 열다.
- 민가협 475회 목요집회. 경찰의 최루탄 사용발언 관련 규탄 등.
- 한총련소속 고려대, 경기대 등 대학생 14명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미군기지에서 '미군의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요구 등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학생들은 미군당국과 경찰에 의해 전원폭

력 강제연행 송파, 중랑, 청량리 경찰서로 감금되다.

13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총련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전력증강, 무기강매, 대북전쟁위협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또한 12일 기습시위 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뒤로 꺾어 프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여학생에 대한 과도한 신체접촉과 폭언을 한데 대해 강력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허환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이 읽고 항의서한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전하려 했으나 받지 않아 부대안에 투입하다.

-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대북송금 특검수사 기간연장 반대와 특검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열다. 권오혁 통일연대 일꾼의 사회로 주종환 교수의 인사말, 권오헌 대표의 특검수사 중단촉구 발언, 한상렬 대표의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6·13 효순·미선 1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주최로 효순·미선 1돌 추모대회를 6만의 시민과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모인 가운데 열다. 1부순서 추모콘서트는 고대, 외대, 경원대 등 34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춤패 율동으로 시작, 우리나라의 '탱크라도 구속해' 등 노래공연. 서기상, 윤미진, 꽃다지, 풍물패 길놀이 등이 있었음. 2부순서는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회로 대회선언. 효순·미선의 명복을 비는 묵념. 110여명의 공동준비위원장 영상과 호명에 이어 성남시립합창단의 아침이슬 노래. 진상규명투쟁과 범국민대회 촛불행진. 소파개정투쟁 등 1년간 활동영상. 효순·미선의 모교인 조양중학교 출신 양주 청소년연희단 '버들피리'의 추모공연. 안치환과 자유 등 공연이 있었음. 이어 전국 40여 도시를 순례한 자주평화 촛불대행진단이 무대에 올라 보고회가 있었으며 효순·미선 부모님들 인사말이 있었음. 또한 참가자 모두의 집단상징 의식으로 성조기를 불태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SOFA개정, 미선이의 한을 풀자, 효순이의 한을 풀자, 조지부시 사죄하라, 전쟁위협 중단하라 등 구호외침. 마지막으로 홍근수 공동준비위원장의 '승리의 메시지' 낭독이 있었음. 2부순서를 마친 참가자들은 방송차량의 지시에 따라 미대사관으로 촛불대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차량으로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상대여서 을지로입구 무교동을 거쳐 종로1가 거리를 다시 가득 메우다. 밤11시 정리집회를 모두마침. 이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깃발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음. 송창학, 김숙희, 김미성, 김민정, 고광희, 하재광, 변의숙, 이승미, 정형근, 이용준, 양계숙, 이득형, 한상권, 이창희, 이봉주, 권오헌 등 함께하다.

14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대북제재 반대, 민족공조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인사말, 한상렬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열리다. 전상봉 상임대표의 대회사,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 이영훈 한총련 조통위원장 등의 결의발언, 이북의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보내온 축하와 연대메세지 낭독을 전대협동우회 이성원 집행위원장이 읽고 한국기독청년회 김숙희 회장과 대한 불교청년회 김일수 부회장이 함께 결의문 낭독을 했음.
-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전국회의 대표 와다나베(渡邊一夫) 선생 등 일본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을 만나다. 이 자리에서 와다나베 선생은 양심수후원회에 3만엔을 양심수를 위해서 써달라고 전달 감사히 받았음(권오헌). 이 자리에는 일본 중의원 의원인 아베 도모코 사민당 의원도 함께했음.
- 홍익대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2000여 청년학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6·15 3돌기념 통일연대 축전(전야제)이 열리다.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문예일꾼들의 사전공연(우리나라, 희망새, 아침의노래) 나창순 범남봄 의장의 대회사, 오종렬, 권영길 대표의 정치연설, 일본 사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의 연대사, '청보리사랑'의 노래공연, 한총련 중앙율동패의 '경의선다고' 율동, 민족극연구소 덧배기, 가극단(준) 미래 한총련 문예단 민족춤패 '출', 희망새, 우리나라, 애청노래모임 등이 함께하는 창작 집체극 '민족공조로 자주평화 지키자' 연출,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춤 한마당으로 모두 마침.
- 홍익대 운동장 특설무대 앞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청

년연합 남측본부 주최로 2천여 청년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남과북, 해외 공동으로 여는 '미군살인 만행 규탄, 신효순 · 심미선 1주기 공동추모대회 열리다. 정재욱 남측본부 의장의 추도사, 성신여대 홍울의 시낭송 '미선이 효순이 살아나고 있다' 등 마지막으로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이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읽는 것으로 마침.

- 같은 자리에서 밤11시 20분부터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2003년 범민련대회'가 열리다.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와 성원이 함께하고 청년학생 등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상렬, 정광훈 대표의 연대사, 임방규 선생의 축사, 북측본부 축사(도광순), 해외본부 축사(이태영)에 이어 범민련 진군가를 합창하는 가운데 단에 오른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대회사를 했음. 청년학생들의 문예공연, 전상봉 한청의장, 정재욱 한총련의장의 정치연설,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우리나라, 희망새 등의 축하노래 축포들을 터뜨려 축제 분위기였음.
- 6 · 15행사가 끝나갈쯤해서 광주, 대전, 서울 양심수후원회 한자리에 모여 소개시간과 나눔의 시간을 가짐.

15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2003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준) 주최로 '6 · 15공동선언 3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이 열림. 남북해외 공동으로 따로 열리는 대축전을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 등이 함께 했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을 비롯한 한총련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김철 천도교 교령의 대회사, 백경남 민화협 상임의장과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들이 대회사를 했음. 이어 남북사이 음성메시지 교환에서는 북측준비위원장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의 육성메시지가 녹음방송되었고 이어 북측에서 별도로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해외준비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왔음. 민족춤패 '출' 등의 축하공연으로 모두 마침.

- 여의도 고수부지 금성무대에서는 양심수후원회 등 69개 단체가 함께하고 범남본 후원회가 주관하는 6 · 15 통일마라톤 대회가 열렸음. 대회준비위원회 명진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참가한 700여명이 절반, 10km, 5km의 마라톤 코스를 달렸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이창희, 고광희, 이용준, 한수정 회원이 함께 했음.
- 미8군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소속단체 성원과 청년학생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대북제재 반대, 전쟁공조반대, 6 · 15공동선언 고수 · 이행을 위한 자주 통일 결의대회'를 열다.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의 대회사, 홍근수, 권오창 대표의 정치연설, 한상렬 대표의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결의문 낭독, 희망새 노래패 공연, 민족춤패 '출' 의 미국패망을 형상한 '패망기념일' 공연이 있었음. 이어 한총련 정재욱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은 뒤 '미군부대 인간 띠 잇기' 에 들어가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저지를 받다. 다시 대열을 정비 한청 부의장과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결의발언으로 모두 마침.
- 지난 12일 미8군에 들어가 전쟁반대, 전력증강에 반대해 항의시위를 했던 한총련 소속학생 14명 가운데 모두 풀려나오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경기대 이상규 학생과 고려대 김도한 학생 두명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이 확정 구속되다.
- 휴전선 부근 도라산역에서 민화협 등이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회'가 열리다. 김종수 신부 사회로 윤재철 민화협 상임대표 대회사, 에베시 타카시 일본 평화포럼회장 연대사, 이창복의원의 개막사, 김철 교령의 축사, 라이너, 베르닝 독일 코리어정보센터 소장의 대회사, 박용길 장로의 평화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대회장에는 NO WAR! 화해! 평화! 통일! 등 4개 고무풍선이 띄어 있었음.

16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열다.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구속자에 대한 대응문제 정순덕선생 간병비문제, 지역양심수후원회와의 연대강화문제, 정치수배자 지원문제 등 논의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후원회소식 140호 발송작업하다. 이득형, 양계숙, 이봉주, 김민정, 나정옥 회원,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함께.
-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민화협과 온겨레 손

잡기 운동본부 공동으로 '6·15공동선언 제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열다. 이수성 민화협 상임대표 대회사, 정세현 통일부장관 축사, 강만길 상지대 총장의 기조연설, 와다 하루키 국제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 사회로 1회의-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유럽·아시아·한반도 2회의-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3회의-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순서로 진행. 국내대표로는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우 등과 국제대표로는 라이너 베르닝 소장, 조셉 거슨 평화경제안정 프로젝트 소장,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학교수 등이 함께 했음.

17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불상앞에서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동국대학교 학생처, 교수, 교직원, 학생회, 석림회 등 공동기자회견이 열리다. 김태준, 강정구 교수와 교직원노조 강형석 위원장, 민주동문회 이상근 사무국장, 불교대 김동국 학생회장(석림회) 등이 수배해제 촉구선언을 낭독했고 이어 이관제 학생처장의 촉구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격려사, 유영빈 총학생회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원회 모임이 명동회관에서 있었음. 심재환변호사, 하영옥 4·30석방자, 이경진씨, 권오헌 함께하다.
- 국방부 정문앞에서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평통사 등 공동으로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규탄 제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의 취지말, 신승철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홍근수 평통사 대표, 김규철 범남본부의장의 규탄연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국 109개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전쟁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2003년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피학살 유족 증언대회를 열고, 정전협정 50돌을 맞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다. 이날 증언에는 부여 금강문학회 학살, 청도 보도연맹 학살, 거창 보도연맹 학살, 파주 교하면 신남리 학살, 해남 마산면 학살, 포항 송골계곡 함포사격, 제주 북촌리 학살 등에 대한 유족들의 증언이 있었음.
-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모임-새봄방송. 다시 시작하는 여는말로 한총련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 녹음하다.(권오헌)
- 140호 소식지를 국내 1,199통, 국제 17통 발송하다. 박정범, 김미성 함께.

18 4월혁명회 창립 15돌기념연회 및 강연회가 계동에서 있었음. 황건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노중선 공동대표의 '정전협정 50년 그 실상과 민족통일문제' 강연이 있었고 기념연회가 있었음.

-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 노동위원장, 허홍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은 조흥은행 본점 앞 주차장에 모인 4500여 조합원이 모인가운데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

19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대북송금 특검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전상봉 대표의 중단촉구발언, 오종렬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특검에 보내는 공개요구서를 나창순, 한상렬, 진관, 정상봉, 권오헌 등이 전달.

- 민가협 476회 목요집회 20여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연합집회로 열림. 여는말 임기란 전상임의장, 김성옥 박제민 학생 어머님 사례발표, 황필규목사, 장유식변호사 등 해제촉구 발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낭독에 신석준 사회당 대표,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 향린교회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상임대표회의 열림. 6·13 1주기 추모대회 경과보고, 전현욱씨 구속관련보고 등이 있었고 6·13 1주기 추모대회 평가 및 향후사업 방향에 관한 건, 추모대회 재정 결산건 등 협의.
-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강행반대 인권활동가 농성장에 민가협 회원들과 격려방문.

20 청와대 입구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 주최로 '청와대 도보순례 1000km 돌파에 즈음한 이석기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윤용배 집행위원장 사회로 최지훈 도보순례단장의 경과

보고, 권오헌 대책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다음, 같은 자리에서 '양심수 이석기 석방촉구 결의대회'를 열다. 정태홍 사회로 오종렬의장 대회사, 이경진씨 사례발표, 4·30사면 석방자 박경순, 하영옥, 임대열, 박용진, 강성철씨 등 인사와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김지은 위원장의 석방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촛불시위 최초구속자 전현욱씨 인권유린 구속사유조작 서울지검 김형렬 검사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 취지말 홍근수 대표, 석방촉구 발언 권오헌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한상렬 대표 등으로 마침.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민·노동자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 전국농민대회'가 열림. 정현찬 의장의 대회사, 오종렬의장의 비준반대 정치연설 등이 있었고 정부가 FTA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있었음. 한편 이날 전국농민회에서는 97개 시·군에서 9천여명이 6,400대의 트럭을 몰고오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고속도로 등에서 대치하고 있었음.

21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청운동에서 갖다. 실무간사 보완문제, 토요캠페인, 소모임활동 활성화문제 등 논의하다.

- 청와대 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3차 대북송금 중단촉구대회' 열다. 통일연대 김건수 자주교류 사무국장 사회로 범남본 나창순 의장의 대회사, 후광사랑모임 단복 대표, 이천제 서울연합 대표, 김근래 한청부의장의 중단촉구 발언 있었고, '대북송금 특검연장'을 불태우는 의식에 이어 명지대 한혜정 경상대학생회장의 '대북송금 특검시한 연장거부 요청서'를 낭독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다.
- 대북송금 송두환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방문 대북송금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다.
-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소극장에서 2003 우리나라 후원콘서트 그 첫 번째 '소화' 공연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회원이기도한 조상희 님은 노래패 우리나라의 성원으로 이시대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민족·민중노래패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열정적인 노래를 불러오고 있었음. 공연은 '길동무'를 처음으로 직접 작사·작곡한 '초코파이동지', '양키는 아메리카로 민족은 통일로' 등 열세곡과 우리나라 팀 모두하는 노래, 우정출연한 박성환씨 노래까지 큰박수와 환호 속에 이어졌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변의숙, 김미성, 권오헌이 함께 했음.

22 양심수후원회 6월산행이 있었음. 당고개역에서 만나 학림사, 상계능선, 독수리봉, 쌍용사계곡으로 내려오는 수락산 산행을 했음. 점심식사 뒤 이창희 회원이 준비한 시사초점 '조흥은행 매각과 노조파업·민족자본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신자유주의 잘못된 현상진단'하다. 김교영, 김재선, 신현익, 송창학, 송인영, 변의숙, 이창희, 권오헌 함께하다.

- 김근태(민주당), 김원웅(개혁당)의원 등 10여명 국회의원은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화해와 국민통합을 위해 대북송금 특검수사를 마무리 해야함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61명 의원 이름으로 요구하다.

23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수사 연장요청에 대북송금 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수사연장 승인을 거부하다.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평화통일 시민연대와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초선의원모임공동 주관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국회의원 협의회' 결성식과 긴급토론회를 열다.

24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2년형이 선고된 이석기씨가 1주일간 귀휴조치로 대전교도소에서 잠시 풀려나다. 가족들과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원회 청년학생 등 50여명이 대전교도소로 마중을 가다. 마중온 대책위 성원들은 '양심수 이석기 완전석방하라'고 쓴 플랭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이석기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석기씨가 환한 웃음을 띄며 교도소문을 나오다. 모든 언론보도 일꾼들의 취재와 마중온 사람들 앞에 귀휴출소 소감을 말하다.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과 대전 실천연대 안응찬 대표의 환영사가 있었음. 이어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님을 뵙기 위해 서울로 떠남. 사당동에 사시는 85세 노모님과 감격적인

만남. 큰절로 인사하고 어머님도 아드님 손 꼭잡고 아주 풀려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음. 이날밤 성남 경원대에서는 양심수 이석기 귀휴출소 환영회가 열렸음.

- 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 모임이 인사동 만복정에서 있었음. 후원회소식 140호 평가와 141호 제작 기획 등 협의하다. 이승미, 박정범, 박정미, 김호, 김미성, 권오헌등 함께하다.
- 경찰청은 전교조의 집단연가 상경투쟁과 조흥은행 노조파업, 부산 · 인천 지하철파업 주요관련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다. 부당한 노조탄압 행패.
- 수배가족분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를 방문하다. 정치수배자들의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적극 협조를 바라는 내용으로 수배자 가족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김미성.

25 양심수후원회 개설 제일은행, 국민은행 등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개설하다. 또한 동대문우체국과 정기간행물 우편물 발송 재계약하다.

-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 현대는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4억달러를 정부는 1억달러의 대북지원금 주기로 약정했으나 현대에서 대신 송금했다고 밝힘. 또한 특검은 박지원 전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불법송금 관여 혐의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다.
- 민주노총 소속 100여개사업장노조 8만여명이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시한부연대파업 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묘공원 등 지역별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 3개영역 제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다.

26 민가협 477회 목요집회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리다. 여는말-임기란 전 상임의장, NEIS 반대 농성자 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발언-기본적인 국민의 인권무시하는 NEIS를 폐지하라, 인권침해 시스템인 NEIS를 반대 발언-김학한(전교조 기획실장), 이석기석방투쟁 도보순례 보고 - 최지호(이석기 석방대책위 상황실장)

-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김남대 부장판사) 심리로 한총련 대변인과 서총련의장을 역임했던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2000) 박제민학생의 첫재판 열리다. 검사의 직접신문과 변호사의 반대심문이 있은다음 검찰은 5년 구형을 했고 변호인 변호사 최후진술이 이어졌음. 박제민 학생은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 반인권성,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부당성을 지적하고 청년학생들의 조국사랑과 자주 · 민주 · 통일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
- 대전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 발족식이 대전지방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리다. 김한섭 사무국장 사회로 민중의례와 홍성순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축사, 참가자 인사, 경과보고(임나리)가 있었음. 이어 임원선출에서 운영위원장에 성광진 전교조선생님, 집행위원장에 김한섭목사 등이 뽑혔고 운영위원들의 분과가입, 운영위원회 문제, 기타 사업계획 등 논의했음.

27 청와대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 주최로 '양심수 이석기 귀휴에 즈음한 완전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하영옥씨의 기자회견 취지말 권오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이석기 석방 결의대회'를 열다. 정태홍 사회로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대회사, 박경순씨의 완전석방 촉구발언, 최지호 도보순례단 단장의 결의발언, 경기민청 이혁기 의장의 결의문 낭독 등으로 마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통일연대 학술연구 특별위원회 주최로 '유사법제 통과를 전후한 일본군국주의 부활음모와 우리민족의 과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림.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종환 교수 사회, 강창일,권혁태, 양미강씨의 발제와 노정선, 양관수, 김승국씨의 토론이 있었음.
- 연세대 푸른샘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한총련과 전국여대생대표자회의 공동으로 '한 · 칠레 무역협정 전면무효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2003년 여름농촌활동 농민 · 학생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부터 9박 10일간 2만여 학생이 농촌활동에 들어간다.
-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모임이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첫만남이 있었음. 남쪽가족 100명과 동행

가족 10명은 이날 속초항을 떠나 금강산에 도착 북쪽가족 217명과 만나게 되었음.

- 국회법사위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개혁관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8일 새벽부터 파업을 하기로 하고 이날 전국 5개지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울에서는 연세대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가다.

28 용산 미8군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월례집회를 열다.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 평택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대북전쟁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가 결사반대 등 주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대회사, 김종철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위원장과 홍근수목사의 전력증강 규탄발언, 신대영 용산사랑시민연대 대표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전국철도노조는 새벽 4시부터 9,5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고 5개지역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그러나 정부는 참여정부 처음으로 농성장에 1만7천여 경찰력을 투입 강제해산하고 노조원 1525명을 강제연행했으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12명과 이날 연행된 백희 선전홍보국장 등 47명을 형사입건 하겠다고 발표.
-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도파업 무력진압 - 규탄대회'를 열고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다. 단병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력진압 철도대란주범 건설부장관 퇴진, 철도대란 해결을 위한 즉각 대화, 4 · 20 합의 파기한 철도구조개혁법 국회강행처리 중단,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을 주장하고 곧바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가다.

29 금강산 7차 이산가족 상봉단 2박 3일의 마지막 가족상봉을 마치고 장전항을 떠나 속초에 돌아오다.

30 양심수 이석기씨가 일주일의 귀휴를 마치고 대전교도소로 돌아가다. 85세 김복순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민가협어머니들, 석방대책위성원 등 50여명이 대전교도소까지 함께가서 약식 양심수전원석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발언에 나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며 특히 이석기씨가 빠른 시일안에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석방조치하라고 강조하다. 이경진 누님의 지난 1주인간 상황과 마지막으로 이석기씨가 여러분들의 힘입어 어머님을 찾아뵐 수 있었다며 비록 갇힌 몸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인사말. 이석기씨는 함께한 모든 사람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4시에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다.

-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촛불시위 최초구속자 전현욱 석방! 촛불시위 탄압 중단! 서울지검 규탄대회'를 열다.
- 종묘공원에서 2만여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한국노총 주최로 '총파업투쟁 진군대회'를 열다. 대회에서는 철도노동자 파업농성장 공권력투입규탄, 비정규직 차별철폐, 경제특구법 폐기, 주5일 노동제도입,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무원 노동기본권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주장. 대회를 마치고 YMCA 앞까지 거리행진. 오늘 한국노총은 488개 사업장에서 6만7천여명이 파업에 참가.
- 민주노총은 국회앞에서 '철도구조개악법 및 한 · 칠레 자유무역법협정 저지, 철도파업 강제진압, 농민탄압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3천여 노동자가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 제7차 남북이산가족상봉단 남쪽가족 472명이 속초를 떠나 금강산 온정각 휴양소에 또한 북쪽의 가족 100명을 만나다. 이들은 1일 개별상봉과 참관상봉 2일 오전 작별상봉을 하게 된다.
- 북쪽 개성직할시 판문군 평화리 1단계 사업지구터에서 남쪽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북쪽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공동 주최로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을 열다. 200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몽헌 당시 현대회장이 공단조성에 합의한지 3년만에 이루어진 착공식으로 1단계 100평을 조성하고 마직막에는 2천평까지 공업지구 건설을 하게 된다.
- 총회자료집 발송작업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일규, 이봉주, 김미성 회원,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함께하다.
- 양심수 60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0,000원 보냄.